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회주의위력을 과시하는 조선

국제사회계가 찬양

《(변하고 희망을 키우는 도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평양의 모습이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경제는 지속적발전을 이룩하고있다. 거리는 생기발랄하고 사람들은 화목하였으며 아이들은 웃고 떠든다.》

《조선은 지금까지 떠돌아온 서방의 짐승과는 너무나 다른 나라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오랜 기간의 제재속에서도 조선이 웅장한 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운 것이다.》

《2년전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와 달리 더욱 새롭게 변모된 평양을 보았다. 날로 변천되는 조선의 모습에서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도 평도자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잇고 사는 나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찬양

경도자와 인민이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조선의 국풍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경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잇고 사는 나라는 아마 조선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하늘처럼 내세워주시는 경도자를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하늘과 태양으로 조화되는 이 숭고한 관계를 조선인민은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에zell트신문 《알 아호바르 알파사이》는 조선사회가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더욱 굳게 단합되게 된 것은

김정은최고경도자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고상한 도덕의리에 기초한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전면적으로 꽃피고있고 있다.

조선의 첫째가는 위력은 일심단결에 있다고 하면서 수리아의 사나통신은 일심단결의 기초는 김정은각하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있다, 김정은각하의 뜨거운 사랑과 정에 매혹된 전체 인민은 그의 경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인다스트리》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시는 김정은최고경도자의 숭고한 인민관이 현실에 구현되고있는 여기에 조선식 사회주의가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그럭저럭 성장추진하는 비결이 있다고 평하였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하늘처럼 내세워주시는 경도자를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하늘과 태양으로 조화되는 이 숭고한 관계를 조선인민은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에zell트신문 《알 아호바르 알파사이》는 조선사회가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더욱 굳게 단합되게 된 것은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하늘처럼 내세워주시는 경도자를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하늘과 태양으로 조화되는 이 숭고한 관계를 조선인민은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에zell트신문 《알 아호바르 알파사이》는 조선사회가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더욱 굳게 단합되게 된 것은

조국 소식

대성산샘물공장 준공식 진행

풍치수려한 대성산지구에 수도시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샘물공장이 새로 일떠섰다.

대성산샘물공장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맛좋은 샘물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대성산샘물공장 준공식이 18일에 진행되었다.

김능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공장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김능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대성산샘물공

장은 우리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경도자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현신의 뜻을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경도자동지께서 주제 106(2017)년 5월 18일 대성산지구에 건설할 샘물공장의 이름을 《대성산샘물공》으로 명명해주시고 공장배치계획안과 설계안도 몸소 지도해주시었으며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간직하고 공장건설에 떨쳐나선 평양시시로련합기계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내내 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자있는 기술혁신단들을 적극 개발도입하면서 건설의 질과 속도를 철저히 보장하여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기술규정의 요를 엄격히 지키며 생산을 활성화함으로써 수도시민들

에게 질 좋은 샘물을 정상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경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선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원로, 자재, 설비의 국산화와 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지난해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긴장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남북의 노동자가 앞장서서 선언리행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평화와 통일을 진심으로 열망하는 조선인민은 북남선언들이 철저히 리행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의 번영과 화해단합의 분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그러나 지금 동족대결남이 뻗어오르며 베이 남조선보수세력과 우리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는 어떻게 해서나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선언리행을 위한 실천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긴장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남북의 노동자가 앞장서서 선언리행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평화와 통일을 진심으로 열망하는 조선인민은 북남선언들이 철저히 리행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의 번영과 화해단합의 분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그러나 지금 동족대결남이 뻗어오르며 베이 남조선보수세력과 우리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는 어떻게 해서나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정세흐름을 판문점선언 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며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질어가는가 파국으로 치닫만 대는 시대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우리 겨레앞에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고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것을 촉구하고있다.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빈틈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리행과 자세부터 바로 가지 그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에서나 리행과 자세를 바로가자야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

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데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면 북과 남이 어떤 세로와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면 손을잡고 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힘있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려면 자주정신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북중시켜야 한다.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은 겨레는 북남선언들을 빈틈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감으로써 민족의 평화번영과 통일성업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김리만



《외세에 기댈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 각계층이 요구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 속에서 북남선언리행과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지난 1일 민주로총은 서울을 비롯한 13개 지역에서 《2019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 민주로총 통일위원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긴장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남북의 노동자가 앞장서서 선언리행의 환경과 조건을 열어나는데 최선을 다할것》

다.》, 《당면하여 4.27부터 9.19까지 (남북선언리행)을 위한 실천투쟁기간)을 선포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환경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 노동자의 자주교류가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8일 부산 미곡경사관앞에서는 《법면 부산

련합》, 《평화통일센터 하나》, 《부산주권련대》의 주최로 《남북관계내정간섭 (한미실무팀) 해체하라!》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법면 부산련합》의 장은 《우리는 외세에 기댈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이 나라의 평화번영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8천만겨레의 그 마음

을 자신있게 받아들여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평양시민들에게 약속했듯이 자주와 자결,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할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행동할것》을 당국에 촉구하였다.

《부산주권련대》 공동대표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